



문민 '판도라 상자'



박찬국 'Path of contact'



서완호 'The Face'



서용주 'Crumpled ocher stripe'



문화파출소 덕진, '여름을 열음' 시민강좌

'현대미술, 의외로 심플한 맛이 있다'

도립미술관, 3040 작가 초청 전시회... 내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 역사의 부침 속에서 예술은 결코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예술에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한다.

특히 현대미술 작가들은 현대문화의 흐름에 맞춰 작가의 개성이 담긴 새로운 표현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정체성이 담긴 30~40대작가들의 전시 '의외로 심플한 현대미술'전을 오는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연다. 오픈식은 7일 오후4시.

이번 전시에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출신 및 전북에서 활동하는 미술가 15인의 작품 84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세상을 둘러싼 해석·꿈·욕망을 도발적 혹은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문민 작가는 어느 철공장에서 20년간 일하던 가장의 망치를 활용, 탐과 눈물이 배

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 아버지의 자화상을 표현한다.

박찬국 작가의 궤적 드로잉은 캔버스 위에 유한한 존재의 반복적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은 서로 충돌하면서 움직이는 원형적 형태를 통해서 절대 완벽하지 않은 모든 사물의 유연성을 이야기한다.

서완호 작가는 비닐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매개로 고독과 소외, 서로가 서로에게 폐쇄적인 현시대를 사는 우리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서용주 작가의 작품은 평면인 캔버스가 구겨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작가는 줄무늬 색과 배경색의 구분을 통해 심리적 판단과정에서의 선입견을 꼬집고 있다.

일회용 종이컵과 여성 혹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립스틱 자국의 미묘한 만남을 담아낸 유용상 작가는 현대인들의 일회적인 사람과 순간적 욕망에 담겨있는 영원

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임희성 작가는 투명한 재료인 비닐에 흔적을 남기고, 6~10번 겹쳐서 새로운 산수화를 구현했다.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의 형상을 살린 쥐로 의인화한 차건우 작가. 그는 쥐를 현혹해 끌고 가는 피리 부는 살찐 쥐를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고위층으로, 끌려가는 쥐들은 권력층에게 아첨하며 그를 따르는 무리로 은유한다.

이문수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은 "현대미술의 동력은 다양성에 있다. 현시대가 불확정성과 모호함으로 치장된 시대이므로 탈 맥락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미술은 그 요구들을 수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편견이나 상식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의외로 심플하다"고 이번 전시를 소개했다.

/정해은 기자

정지필 '500원짜리' →



차건우 '베리리 베리리리' →

유용상 'BUBBLE' ↓



↓ 정지필 '500원짜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의 '문화파출소 덕진'은 사계절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 장르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무더위를 잊고 오감을 열게 하는 '여름을 열음' 기획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청각의 감각을 여는 음악(악기)장르로 구성했다.

무더위로 바깥 활동이 불편한 여름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타를 비롯해 우쿨렐레, 색소폰 강좌를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촉각의 감각을 여는 프로그램으로는 미싱, 보태니컬 아트, 실크스크린, 꽃꽂이가 있다. 이는 참여자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여름풍경의 이미지를 예술가(강사들)와 협업으로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 강좌는 단순 기능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작품에 담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문화파출소 덕진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

수강 신청 및 공간 대여에 관한 문의는 전화(063-713-0728)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결혼이민여성 미니취업박람회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신수미 센터장)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센터에서 2017년 결혼이민여성 취업설명회(PI), 꿈을 위한 도전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미니취업박람회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직업교육훈련 '제과생산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및 도내 구직희망여성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취업설계사와 1:1 구직상담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내 유망기업 및 여성친화기업인 (주)전주제과, 맘스브레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어라하, 글로벌부커제 김제, 하니비베이커리 5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면접과 전향베이커리, (주)천년누리 등 간접업체 20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수미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비록 소규모 취업박람회지만 취업의 첫 단추인 이력서 작성부터 전문취업설계사의 직업상담, 기업인사담당자의 현장면접 및 채용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며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요즘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미니취업박람회를 통해 사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교육을 행복은 교육과다섯+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